

배우 윤여정, 제93회 아카데미 시상식 여우조연상 수상

“These are the nominees for the best supporting actress and the Oscar goes to … YUH JUNG YOUN!”

배우 윤여정(1947년 6월 19일 丁亥生 돼지띠)이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유니언 스테이션에서 열린 제93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미나리’의 순자 역으로 아카데미상을 거머쥐었다. 지난해 ‘기생충’으로 봉준호 감독이 아카데미 4관왕에 오른 뒤 한국인으로서 2년 연속 쾌거다. 아카데미 상은 미국의 가장 권위 있는 영화 시상식이며,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영화 시상식이다. 93년 아카데미 역사에서 한국 배우가 연기상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고, 한국 영화 역사에 있어서도 최초다.

윤여정은 1966년 TBC 공채탤런트 3기로 데뷔하여 연기자로 보낸 시간이 55년 차인 베테랑 원로배우이다. 2021년 현재까지도 주연과 조연, 상업영화와 독립영화를 가리지 않고 한결같은 연기철학으로 배우 생활을 끊임없이 이어가고 있다.

윤 배우는 데뷔 이후 배우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연기의 기본 소양으로 간절함과 감정의 중요함을 수많은 인터뷰에서 밝혀오며 지금의 이 수상이 결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님을 보여줬다. 1990년 연극 <위기의 여자> 공연 후 인터뷰에서 “나는 살기 위해서 목숨 걸고 한 거였어요…한 신탄 싹이 없는 연기는 죽어 있는 거라고”라고 이야기했고 2010년 <하녀> 개봉 뒤 인터뷰에서 “나는 생계형 연기자예요. 연기자가 가장 연기를 잘할 때는 돈이 궁할 때예요. … 예술가도 배고플 때 그린 그림이 최고예요.”라며 그녀가 가진 연기의 간절함, 진실성을 보여줬다. 또한 2009년 MBC <황금어장-무릎팍 도사> 중 “난 배우가 논리를 논하는 게 싫어요. 배우는 느낌으로, 감성으로 하는 거예요”라고 말한 바 있다.

그녀는 1974년 결혼과 동시에 배우 활동을 중단하고 미국으로 건너갔다. 오랜 공백기와 이혼 이후 1980년대 후반에 스크린에 복귀했을 때, 대중의 시선은 그리 곱지 않았다. 그러나 1990년대 2000년대를 거쳐 단역과 조역을 마다하지 않고 파격적인 연기에도 도전하는 등 배우로서 입지를 다졌고 예능 ‘꽃보다 누나’, ‘윤식당’, ‘윤스테이’ 등에도 출연하여 당당하고 솔직한 모습을 대중에게 보여줘 다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KMIF**

